

중국인 세계 1위 성경 수출국 90언어 800만권 70여개국으로

유일 성경 인쇄 단체 '아미티 재단' 연간 1800만권 생산 능력 갖춰

중국이 세계 1위 성경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1980년대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부족해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여 돌려 보던 시대를 거친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유일한 중국 내 성서 인쇄 단체인 아미티 재단(Amity Foundation)은 12년 12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생산했고 이중 3분2 가량을 수출했다. 중국어를 포함 스와힐리어(Swahili), 줄루어(Zulu), 러시아어를 포함하여 90개 언어의 성경을 생산해 70개국 이상에 전하고 있다. 아미티 재단은 생산 첫해에는 50만권을 생산했지만 현재는 난징에 연간 1800만권의 성경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에는 1억번째 성경을 출판했다. 5천만 권 인쇄를 위해 20일이 소요됐으나, 나머지 5천만 권을 인쇄하는 데는 약 5년이 걸렸다. 또한 앞으로 10년 내 2억 권의 성경을 출판해 중국과 전 세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미티 재단의 설립은 30여년 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고등소령 주석과의 만남 가운데 카터 대통령이 중국인들이 자신의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지 질문해 고등소령 주석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쳐 87년에 공식적인 성경 인쇄소가 세워졌다. 이 단체는 이듬해인 88년 성경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정부 기관인 중국 기독교 위원회(China Christian Council)와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놀라운 성장과 수출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성경 보급은 크리스천들의 성장세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연구 단체 Pew

Forum의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5%로 그 규모가 6,7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기독교인은 8천2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자선 단체 '차이나 에이드(ChinaAid)'의 설립자 푸(Bob Fu) 대표는, 아미티의 중국 내 수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기독교인의 성장세를 따라 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기관인 중국 기독교 위원회는 아미티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55,000개의 '공식' 교회에만 성경을 판매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푸 대표는 설명했다. 즉 수십만에 이르는 중국의 '비공식' 가정 교회들은 아미티의 성경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비공식' 교회와 '공식' 교회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중국의 가정 교회는 여전히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중국 교회의 성경 부족분은 여전히 외국 단체들이 메우고 있다. 미국의 선교 단체 아시아 하베스트(Asia Harvest)의 해터웨이(Paul Hattaway)는 중국에 여전히 성경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해터웨이는 가정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600만권의 성경을 지하 가정교회에 배포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안휘성에 거주하는 가정 교회 지도자 루(Lu)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성경을 구하는 것이 수월해졌지만, 아직 성경 배포 상황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가정 교회 성도들은 다량히도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아미티에서 제작한 성경이라고, 루는 밝혔다.



오는 12월에 열릴 하이얼콜링 컨퍼런스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KCCC USA 관계자들과 2세 교역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세들이 주도하는 '하이얼콜링' 영적 추수 준비한다

차세대에 의한 차세대 집회로

지난 대회서 단기선교사 1천명

장기선교사 20여명 배출

미주 한인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예수의 군사로 양성하기 위한 하이얼콜링(Higher calling) 컨퍼런스가 오는 12월 26-29일 샌디에고 타운&컨트리호텔컨벤션센터(500 Hotel Circle North, San Diego)에서 열린다.

지난 3년간 미주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CCC USA와 북미주 교회가 연합으로 주최했던 GKYM(지킴) 컨퍼런스가 올해는 하이얼콜링 컨퍼런스로 마련된다.

'The Life(생명)'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집회는 1.5세와 2세가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차세대에 의한 차세대들을 위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전망했다.

KCCC USA, NexGen Pastors Fellowship,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

주최하며, 남가주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토론토 등 5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된다.

집회 강사로는 프랜시스 찬(코너스톤처치), 데이브 기본스(뉴슈퍼), 로저 허쉬(Author of The Finisher), 집밖 박(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김동환 목사(KCCC USA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다.

앞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동환 목사는 "자신의 꿈을 좇는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주며, 소명을 심어 줄 이번 집회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최 측은 "지난해에 열린 컨퍼런스를 통해 1000명의 단기선교사를 배출했고, KCCC에서만 20명의 장기선교사를 배출하는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주 청소년들이 집회를 통해 중생을 체험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남가주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영어권 목회자들이 실행위원으로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야말로 1.5세와 2세가 주도하고 1세 지도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가는 하이얼콜링 컨퍼런스는 북미주 지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차세대 리더를 키워가는 집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동시에 중소형 교회의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강소교회 연합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일정은 매일 아침 및 저녁 집회를 비롯해 50여개의 선택식 특강, 전도 훈련, 순모임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영어로 진행(통역 제공)된다. 특히 선택식 특강은 한국어 강의로 개설될 예정이어서 한어권과 영어권의 연합의 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등록비는 11월 11일까지 170달러, 12월 9일까지 190달러, 12월 26일까지 240달러다. 숙박비 포함.

문의: (213) 389-5222

토마스 맥 기자



한인 출신 데이빗 이 교수, 프린스턴대학 부총장 선임

프린스턴대학교의 부총장에 한인 출신 데이빗 이(한국명 이상윤, 41세) 교수가 선임됐다. 아시아인 이 대학의

부총장에 오른 것은 최초다. 이 교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하고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학교, UC버클리 등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고

2007년 모교로 돌아왔다. 아내 크리스티나 이(이효정) 교수도 같은 대학에서 문화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오토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 및 수여식

이 시대는 진정한 리더십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젊은 크리스천들이 미국 사회의 각 분야에 들어가서 크리스천 문화를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금번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차세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그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장학금으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각 교회와 크리스천업체와 기업에서는 이번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

1. 장학생 대상은 남가주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2. 신청자격은 11학년부부터 대학 2학년으로 한다.(2013년 9월 기준 / 재학증명서 제출)
3.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으로 한다. (담당목사 추천서 제출)
4. 지난 1년 학교 성적 GPA 3.5 이상으로 한다. (지난 1년 성적증명서 제출)
5.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출석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교회 주보 제출)
6. 한가정당 1년 수입 3만불 이하 가정을 우선으로 한다. (2012년도 택스보고서-HRS 제출)

장학생 신청서와 보낼 서류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웹사이트(www.theckc.org)에 가셔서 장학금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장학금 신청서와 및 위 장학생 선발 기준에 나와있는 서류(5개)를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참고사항
 장학생의 비율은 고등학교 20%, 대학교 80%로 한다. 성적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는 20%를 할당하며, 타민족에게는 10%를 배정한다. 비슷한 조건일 경우, 개척교회(미자립교회) 출석자와 가정의 재정 순으로 정한다.

- 접수기간 : 6월 1일~30일(최종 6월 30일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함)
- 심사기간 : 7월 1일~15일
- 수여식 : 7월 21일(주일) 오후 5시

장학금 보내실 곳 :

CKCSC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양경선목사 (213) 255-1725 office@theckc.org

오렌지카운티지역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송규식목사 (714) 699-0210 qsong405@gmail.com

Pay to order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CKCSC
 O.C. 기독교교회협의회: CKCOC



교회 재정 60% 선교에... '선교사의 원리는 선교지서 해결'



플러 동문회, 전주안디옥교회 박진구 목사 강사로 세미나 개최

플러신학대 한인총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 주최, 한인 M.Div. 동문회(회장 박세헌 목사) 주관으로 '2013 플러 목회자 세미나'가 10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주제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강통교회: 어제 오늘과 내일'로 열렸으며, 강사는 전주안디옥교회 2대 담임인 박진구 목사(사진)가 초청됐다.

박진구 목사는 "전주 안디옥교회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에 지출하고 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교회를 본받아 안디옥교회라 이름을 짓게 됐다"며 "강통에서 모이니 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데서 모이니'고 말한다. 교회가 기장(기독교장로회)

소속인데 나누는 것을 기치로 한 진짜 기장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1대 담임인 이동휘 목사가 목회할 당시부터 담임목사보다 교역자가 식구가 많을 경우 사례비를 더 주고 있다. 담임목사는 보너스도 없다. 그리고 성탄절에 주일학교 상품과 선물 주는 것이 없으며, 성가대 가운은 자비로 마련하고 식사비는 식권을 구입해 각자 사먹고 있다. 당회원들이 교회 헌금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것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특징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면서 일을 시키면 성도들이 짜증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데, 자비로 일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며 "싱가포르에 아무것

도 없이 선교를 나가 여러 헌금과 헌물로 활동을 펼쳤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찾아나서는 것이 선교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선교사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왔다. 선교사의 원리는 선교지에서 해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구 목사는 싱가포르 선교사로 다년간 사역을 펼쳤으며, 플러신대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필리핀에 있는 바울선교훈련원 원장으로 사역했다. 이후 '강통교회'로 잘 알려진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휘 목사에 이어 2대 담임목사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목회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찬양 사역자 음반활동 돕는 '8가 라이트 스튜디오' 설립돼

찬양 사역자들의 음반활동을 격려하고 돕는 '8가 라이트 스튜디오(8th Light Studio)'가 세워졌다.

KCCC USA(1636 W 8th St. LA, CA)건물 3층에 위치한 8가 라이트 스튜디오를 이끄는 사역자는 KCCC 찬양 사역자이자 KCCC 커뮤니티 미니스트리의 디렉터인 박종술 목사(사진)다.

그는 1만여명이 참석한 11.11.11 로즈볼연합기도대회에서 전제 회중 찬양을 뜨겁게 인도한 실력과 찬양 인도자이다. 박 목사가 직접 실내 인터리어를 설계하고 꾸민 스튜디오 내부는 감각적인 환경을 자랑한다.

박 목사는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예배사역, 예배를 세우는 선교사역을 펼치고 싶다"며 "찬양사역자들이 음반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들을 위한 장소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링크'라는 팀이 음반 레코더 작업을 이곳에서 완료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스튜디오 환경을 일반 스튜디오에 견주어 볼 때 뒤지지 않게 만들었다. 뜻있는 분들의 음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이용시 다른 곳에 비해 50% 저렴한 음반작업을 할 수 있다.

▷문의: (213) 389-5222
토마스 멩 기자



미션크리스찬대학교 졸업 및 학위 수여식

미션크리스찬대학교 및 대학원(총장 윤요한 박사)이 10일 오후 본교 강당에서 2013학년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학장 정 윤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졸업예식은 김동환 목사(말씀의 집 담임)의 대표기도에 이어, 이 대학 찬양단(지휘 필립천 전도사)의 특별한 찬양으로 강당을 빛냈다. 이어 김상구 목사(KPCA증경총회장)가 '참 목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득룡 박사(전 총신대학교 대학원장), 조영제 목사, 홍성학 목사, 오기열 목사, 이정현 목사(크리스찬비전 발행인) 등이 권면, 격려사, 축사를 했다. 아울러 동문회 회장 현근석 목사가 광고 및 인사, 조영제 목사가 축도를 담당했다.

이날 4명의 졸업생에게 학위와 상패 그리고 축하메달이 수여됐다.

▷문의: (562) 869-7497(미션크리스찬대학교 교무처)



미션크리스찬대학교 교수진과 졸업생 및 제학생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design@christianherald.com <design@christianherald.com>;

THE REFORMED UNIVERSITY

미주개혁대학교 1990년에 고 박요한 박사가 설립한 미주개혁대학교는 철저한 신학 학문 바탕으로 영성훈련, 교회헌법, 예식, 목회실습 등 전통성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캐리대학 코리안 Ph.D 과정 >>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과정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미주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 1. 선교 2. 기독교 교육 3. 글로벌 리더십

특징: 윌리엄캐리대학의 졸업장을 받는다
한국 지도교수에게 한국어로 공부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멘토링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윌리엄캐리대학의 도서실과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복수학위 수여 (Ph.D) >>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미주개혁대학의 D. Min, D. Miss, Ph.D in Theology(24-30학점)를 추가로 이수할 경우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주개혁대학은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편리한 통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Undergraduate 대학부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Graduate 대학원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Graduate 박사원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2013 여름학기 속성클래스 Intensive Program으로 등록 >>

1주일 집중 교육함으로 한 학기를 수료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 26일(금)
장소: 미주개혁대학교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수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Office 213-736-6500 | Fax 213-736-6504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SEVIS I-20 발행

[인터뷰] 두드림교회 안세광 목사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하나님의 꿈' 향해 전진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어른들의 지원과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선교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

엔텔롭 지역 섬기는 커뮤니티 교회 되길

말씀과 기도 통해 하나님의 꿈 펼쳐나갈 터

LA에서 북서쪽으로 산타클라리타(Santa Clarita)를 지나 북동쪽으로 가면 팜데일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LA에 사는 사람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LA에서 한시간 거리의 팜데일(Palmdale)은 LA카운티의 끝부분에 속한다.

팜데일과 바로 옆 도시인 랜캐스터(Lancaster)가 속하는 엔텔롭밸리(Antelope valley)에는 20여개의 이민 교회가 세워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곳은 고산시대이자 모하비 사막이 시작되는 초입으로 공기가 좋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살기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다.

팜데일은 하루에 봄여름가을겨울을 다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신선한 영적인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사막지대 위에 세워진 도시에 영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교회는 바로 두드림 교회.

이 교회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지친 영혼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고 있는 두드림교회 담임 안세광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

처음에 3~4가정이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서 그해 4월에 두드림교회로 시작됐다.

-교회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꿈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두드림교회라고 명하게 됐다. 두가지 의미가 있다. '두드림'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의미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드리는 기도'를 하자는 것이다. 얼마 전 6주년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표어인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됐다.

-교회 소개를 한다면.

팜데일 지역에 한인교회가 7개 있다. 그중 우리 교인 연령대가 가장 젊은 편이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어른들이 든든히 지탱해주고 있지만 말이다. 어른 분들 중에 타 지역에서 은퇴하고 나와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 어른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로 도움을 주고 젊은이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다. 연령층이 세대별로 다양한 편이다.

-얼마 전 바나바훈련원장 이강천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강천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서울신학대에 다닐 때 스승이었다. 나는 2006년에 미국에 와서 바이올라 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신학대를 다닐 때 목회 본질과 교회 본질이 '비전과 기도'라는 것을 그분한테 배우게 됐다. 교회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힘과 축복을 갖고 선교해야 한다는 도전을 많이 받았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삼각형이 있다면 '비전'과 '기도'와 '선교'라는 것이다.

이강천 목사님을 이번엔 보면서 '신학생 시절 때 배운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고, 6년 동안 이민목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역은 '말씀'과 '기도'이다. 비전에 대한 부분은 말씀에서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새벽예배 때 매일 성경 한 장씩 묵상해 오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지

금은 이사야서까지 왔다. 주일 설교 시간에는 성경의 각권을 보고 있고, 기본적인 성경공부 모임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커리큘럼이 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면 직분을 떠나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 1단계는 구원과 기도응답, 성령의 인도하심, 용서와 승리 등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2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활양식을 보게 된다. 2단계까지는 필수로 공부해야 하고 3단계에서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 보고 있다.

화요일 새벽에는 어른들 중심으로 성경공부가 이뤄지고 있고, 목요일 오전에는 젊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오아시스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와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이 모임에는 교회를 안다니는 분들과 상담에 다니는 분들도 와서 교제를 나누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 1.5세 및 젊은이들은 주중에 수시로 모여서 말씀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고 있다.

-교회가 움직이는 큰 바퀴는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사역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그 당시 이 지역에 새벽예배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찬양예배를 통해 중보기도를 한다. 새벽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일에는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 이웃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네 가지 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간증의 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럽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세상의 소

리, 사람의 소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소리다. 요즘에는 저녁기도 모임이 시작됐으며, 아울러 두드림교회 공동기도문을 만들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6줄로 된 기도문을 아침 6시, 정오, 저녁 9시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읽는 것이다.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 선교의 핵심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사귀느냐에 있다. 그 사귀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선교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 선교의 시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나눔이 풍성해지면 커뮤니티 교회로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엔텔롭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어떠한 모습이든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달에 한번 홈리스들에게 저녁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 매월 마지막 주에 노인병원에 가서 예배로 섬기고 있다.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1:1 상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역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한다. 커뮤니티 봉사를 올해까지 5년 동안 해오는데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해준다.

-그밖에 다른 사역이 있다면.

지역 한인들에게 3년 동안 장학금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1년에 한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외 선교 사역은 요르단, 탄자니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다.

이 선교사들이 교회에 방문할 때면 선교 부흥회를 열고 교제를 나눈다. 앞으로 성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선교사들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섬겨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토마스 맹 기자

-시온마켓 내-

치우차우만두

- 전빵
- 아채만두
- 고기만두
- 물만두
- 김치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세탁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에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미 남침례회도 교세 감소 면치 못해

(SBC)

침례수, 2011년 0.7% 증가했으나 2012년 5.5% 감소

미 동남부 지역에서 큰 교세를 갖고 있는 남침례회(SBC) 역시 교세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례교회프로필(ACP) 결과 및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반적으로 남침례회 소속 교회들의 '성도수, 평균 출석수, 침례, 헌금액' 등 중요한 몇 가지 수치가 감소세여서, 프랭크 페이지 총재 등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남침례회(SBC)와 협력관계에 있는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에서 실

시한 연례교회프로필(ACP) 조사는, 남침례회에 속한 교회들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0.6% 상승해, 270개 증가로 총 46,034개로 나타났다. 남침례교회는 또한 지난해 교회 형태의 선교를 4,992개 실시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40개 가량 증가한 숫자다. 여기에는 교회나 교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됐다.

남침례회와 연관된 회중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교회들의 성도들은 약 10만 명 가량 줄어들었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0.7% 감소한 1,590만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주일예배 참석 성도수는

3.1%인 약 597만명이 줄어 교세 감소를 실감하게 했다.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서치측은 2011년 보고에서 침례 숫자가 약 0.7% 증가해 작게나마 희망을 볼 수 있었지만, 불과 1년이 지난 2012년 보고에서는 2011년에 증가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5.5% 감소를 기록해 총 침례수는 314,956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948년 이후 2012년 침례수는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8년 동안 6년 연속 감소세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성도수에 대한 침례비율은 50명당 한 명으로 증

가했다.

라이프웨이의 대표이자 CEO인 톰 S. 레니어 씨는 "성도수 당 침례비율이 증가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침례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언급했다.

레니어 씨는 그러면서 "남침례교회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복음의 메시지는 살아 있고, 오늘날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능력이 있다.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담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프랭크 페이지 목사는 "우리는 이

번에 밝혀진 사실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스도를 원하는 이들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교회로 가는가? 모든 것들을 그 지역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질문들에 모든 남침례교인들이 답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사 람들을 데려 오는가, 아니면 오지 못 하게 하는가? 나는 선교를 더하는 자인가, 감소하게 하는 자인가? 나는 나의 교회를 지원하는데 신실한가?'라고 했다.

신디 김 기자

미국 여론 60% “결혼법은 주정부 권한” 왜 중요한가



워싱턴주 첫번째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인 애보트(Jane Abbott 좌)와 35년 동안 그녀의 파트너였던 피트-E 피터슨(Pete-e Petersen 85, 우)을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 군수가 축하하고 있다.

동성결혼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들은 결혼의 문제가 연방정부

30세 이하에선 68%가 동성결혼 찬성, 65세 이상은 32%

의 소관이 아니라 각 주 법에 귀속된 문제라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와 CBS는 미국 성인 1022명에게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각 주정부에 맡겨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60%가 주정부의 권리라고 답했다. 33%만이 연방정부가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56%는 각 주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39%는 이에 반대하고 있었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이 설문에서 51%의 미국인들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었고 44%는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할만한 점은 30세 이하에서는 무려 68%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었으며 65세 이상에서는 32%만이 찬성하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과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초점은 동성결혼자의 법적 평등권 문제와 연방정부가 과연 주 헌법이 규정하는 결혼법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가다.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스윙보터 역할을 할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입에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결혼의 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변론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계속 주장했으나 케네디 대법

관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는 “연방제 시스템 안에서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주정부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결혼법을 주정부의 소관에 둔다면, 프로포지션8은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이므로 연방대법원이 그대로 유지시키게 되며 곧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임을 의미한다. 결혼보호법 역시 그 제정 동기가 동성결혼을 금지한다는 것보다는 동성결혼자들에게는 연방법 상의 각종 혜택을 금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주마다 다른 현 상황에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볼 수 있다.

김영신 기자

슈퍼볼 우승팀의 버크, 백악관 초청 거부



백악관을 방문한 발티모어 레이브스. 그러나 맷 버크 선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 프로풋볼팀 발티모어 레이브스의 맷 버크 선수가, 오바마 대통령의 낙태 지지 발언에 반대해 백악관 초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그 해의 슈퍼볼 우승팀이 백악관으로 초대되는 행사가 열린다. 2월 4일 레이브스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를 꺾고 12년

“낙태 지지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다”

만에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이 경기를 끝으로 버크 선수는 은퇴했다.

5, 6일 양일간 열린 행사에서 버크가 보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그 이유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버크는 미네소타의 한 스포츠 블로그에 그 이유를 밝혔다.

버크는 “나는 백악관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몇 주 전 대통령은 연설 중 ‘하나님께서 Planned Parenthood’에 복 주시길(God bless Planned Parenthood)’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버크는 동성결혼과 낙태를 반대하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Planned Parenthood’는 미국 최대의 낙태단체다.

버크는 “나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낙태 지지에 나 역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단체는 매년 33만명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행동에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대로 정

말 하나님께서 매년 33만 명의 생명을 끝장내는 이 단체에 축복을 하실까”라고 물으며 글을 맺었다.

1976년생인 버크는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풋볼팀에서 프로로 전향해 선수생활 동안 2번의 올프로, 6번의 프로볼에 선정되고 결국 챔피언에 올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기도 하다.

김영신 기자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2013년 신[편]입생 모집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과정

온라인 강의 전격 개설(2013년 가을학기부터)

여름계절학기

- 기간 : 6월 10일(월) ~ 8월 16일(금)
- 개설 과목 : 신약약중간사, 목회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선교와 세계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지혜문학 외 다수
- 등록 : 5월 13일(월) ~17(금)

가을학기

- 가을학기 개강일 : 8월 26일(월)
-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www.pts.edu) '입학정보실' 참조.
- 입학 관련 문의 : Tel. 562.926.1023, ext. 300 / E-mail. office@pts.edu

본교는 미국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인 동시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본교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 예장통합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K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한국 예장통합으로 이명도 가능합니다.

ESL 과정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현직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여름 학기 개강일 : 5월 20일(월) ~ 8월 30일(금) (총 15주)
- 수강과정 능력측정(level test) : 5월 13일(월), 오전 10시
- 가을학기 개강일 : 9월 9일(월) ~ 12월 20일(금) (총 15주)
- 학비 : 학기당 \$2,200 (1년 3학기제)

이사장 김인식 목사
총장 이상명 박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 www.pts.edu

지혜있는 청지기

누가복음 12장 35-48절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청지기라는 말은 교회의 일을 맡아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35-48절까지인데, 35-38절까지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려 주셨고, 39-40절까지는 집주인과 도적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41-48절까지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태만하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 들고 서서 교회를 지키며 자기 믿음을 지키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눈뜨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마치 그 주인이 멀리 잔치집에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에 이와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돌아오실 주인을 간절할 마음으로 정중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은 주인이 자기가 걸옷을 벗어놓고 허리에 띠를 띠고 부엌에 가서 음식을 내다가 그 충성스러운 종을 대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간절할 마음으로 기쁨 많이 채운 등불을 밝혀 놓고 완전히 준비를 갖춘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충성스러운 종들을 섬기고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밤8시반~11시)이나 삼경(11시~새벽1시반)에 오신다 할지라도 종들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들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맞이하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는 비유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4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여쭙기를 주께서 비유를 제자인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42절 이하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

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해서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선한 종과 악한 종,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구분지어 말씀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 믿음이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하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언제 오실런지 모르는 예수님을 즉시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기쁨(성령)과 등불(진리)을 다 준비해서 불을 밝혀 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바뀌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입장을 따르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늘나라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살기를 힘썼습니다.

직분도 처음 받았을 때는 황송무지해서 감개무량한 눈물로 감지덕지하는 감사를 드리고, 저같이 부족한 것 죄만 짓다가 예수님 알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죄와 지옥행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성령이 오시면서 인 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 교회의 일원으로 조직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봉사하라고 직분 주시고 직책 맡기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황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열심이 특심해서 그 믿음이 참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터리 신자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형식적이고 건성이고 습관적이 되어 버립니다. 생명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저주가 가득히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치레뿐인 신앙, 알맹이 없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것에 얽매어 가지고 육신의 시간과 정욕, 물질까지도 세상의 허욕과 탐심을 위하여 부질없이 투자하고 헛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도 목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많이 울며 애타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충성스러운 종은 항상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서, 램프에 기름도 꽉 채우고 불도 심지가 깨끗한 걸로 아주 밝히 등불을 들고, 오실 재림의 주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

습을 보시면 부동켜 안고 입 맞추고 얼마나 칭찬하시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는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가고 이제 한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다 이겁니다.

쇠뿔에 뿔굴며 살아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죄악세상이 자기 죄값으로 엄청난 가난과 질병, 부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생지옥 같은 고통을 날마다 겪고 살며, 때로는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서도 그래도 이 세상이 죽어서 가는 세상보다는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말뚝 박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조건에 너무나 얽매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형식적이고 건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일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쁨 많이 채워 밝혀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선한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말씀하실 때 선한청지기는 하나님 교회의 조직의 일원으로 교구장, 조장, 구역장, 교사, 부장, 주임교사등으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식구, 전도회원, 이런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 진리의 쫄로 잘 먹여서 그들의 영혼이 아주 견고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가꾸어가면서, 그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힘 있게 잘 받들고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어 보시게 될 때 그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관리했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어서 도리어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자기가 허리띠를 띠고 음식을 만들어서 충성한 종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게 될 것이라

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그 종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만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은 부서와 맡겨진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만 피파시고, 먹으며 정신없는 세월을 보낼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인생은 되게 얻어맞고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서 하늘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아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늘나라 가야 하는데 못갈 사람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갈 준비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나도 한 몫을 맡아 봉사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멍에도 없고, 고베도 없는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직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제(諸)자에 맡길 직(職)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맡은 모든 사람을 제직이라고 해서 그들을 모아 놓고 목자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양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직 회입니다. 이런 제직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가버리는 것은 제직의 직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방대한 조직이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속 단합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힘있게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 노릇 잘하는 것이 됩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재림 예수님을 언제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기다립시다. 기왕이면 지혜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 반 / 동부 오후 6시 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11시 50분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P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일제에 사랑교회, 믿음의 우산을 전하는 신요교회, 메이벳 맥 변회사 그룹, 미동원 변호사 그룹, 가주 장로회, Lahenco, Inc. 세일러 자영사, 남가주 총회도도협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원망하지 않는 사람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들이 바로 흡리스 피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강 찬(Chan Kang)"입니다. 아마도 중간 글자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강 0찬"이라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던 강군은 17세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강군을 버려두고 사라집니다.

강군은 뉴욕의 롱 아일랜드(Long Island)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전혀 영어를 하지 못했던 그가 3년이 지난 후에 이웃의 도움을 받아 하버드 대학교에, 그것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는 입지전적(立志傳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화면을 보니 그는 피아노도 잘 치고 영어도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유창하게 했습니다. 피아노

를 치는 그의 모습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피아노 학원에 다녔을 그의 어린 시절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강군은 NBC 기자의 질문에 "아버지가 떠나도 놀라지 않았다"며 "두려웠지만 내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티없이 밝고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혹독한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에 있었구나."

10년쯤 지난 후에 어느 기자가 다시 이 청년을 만나서 그가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성취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Four Ages Of Man

인간의 네 시대

William Butler Yeats

*He with body waged a fight,
그는 몸으로 싸웠으나
But body won: it walks upright.
몸은 이겨 당당히 걷는다네
Then he struggled with the heart;
그리고 마음 안에서 싸웠으나
Innocence and peace depart.
순진성과 평화는 떠난다네
Then he struggled with the mind;
또한 정신력으로 싸우고
His proud heart he left behind.
자랑스러운 마음을 뒤로 했다네
Now his wars on God begin:
이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네
At stroke of midnight God shall win.
한밤 중 하나님은 단숨에 이길 것이라네*

학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한 장본인이다. 예이츠는 그의 말년에 아일랜드에서 상원 의원에 두 번씩이나 당선돼 봉사하기도 했다. 문학평론가들은 그의 시에 대해 감동적이고 영적이며, 수준높은 예술성이 담겨있는 시라 평가한다.

(시 감상)

이 시는 인생의 계절 또는 삶의 단계를 노래하고 있다. 일찍이 예이츠 외에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계절에 대해 글을 썼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7단계(The Seven Ages of Man)를 노래했고, 앤 브래드스트리트는 인생의 4단계(The Four Ages of Man)란 제목으로 오래 전에 노래했다.

또 다니엘 레빈슨은 인생의 계절(The Seasons of a Man's Life)이란 작품을 써서 인생을 사계절로 나눠 인간의 삶에 대해 설명했다. 예이츠 역시 이 시속에서 삶을 4시대로 구분해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제목으로 보아 인생에는 네 시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 시는 사람이 평생 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부닥쳐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으로, 육체적 시련을 다루고 있다. 즉, 어떻게 육체를 다스려야 하는

가로부터 시작한다. 육체를 훈련하면 승리하여 땀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잔리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 운율에서는 한 단계 올라가 마음으로 투쟁해야 한다. 육체적 투쟁은 단순할런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투쟁은 심리적인 작전을 써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심리전에서 이기려면 순진성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순진성을 상실한다는 말은 마음의 간교를 부려야 하고 교활해져 평화를 상실하게 된다는 뜻일 터다.

세 번째 운율은 인간은 이성적 혹은 이치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지성적인 면이 두드러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성은 인간 본연의 자애 곧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외면하기도 한다. 자기 존중과 도덕적 위엄을 상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지막 운율은 영적인 도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오직 여호와를 섬김으로 몸과 마음과 머리와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는 아름다우면서도 교훈적인 시라 보면 좋을 듯 하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의미가 이 시 속에 담겨있다.

배효식 교수
아메리칸침례대학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John: What are you doing now?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Maria: I am reading a book now. (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John: How many books do you read a day? (당신은 하루에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Maria: I read only one book a day. (전 하루에 딱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

▷John: Do you like to read the books? (책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Maria: Yes, I do. Reading a book is fun. (네,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John: Do you like your English teacher? (당신은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십니까?)

▷Maria: Yes, I like my English teacher. (네, 저는 저의 영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English (중급 영어)

John came to tell people about the light, so that all should hear the message and believe.

John was not the light; he only came to tell about the light. This was the real light - the light that comes into the world and shines on all people (John 1: 7-9).

요한은 빛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왔다. 그러므로 모두가 메시지를 듣고 믿도록 했다. 요한은 빛이 아니고 다만 빛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왔을 뿐이었다. 이 빛은 참 빛이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빛이다. <요한복음 1:7-9>

English (고급 영어)

Our life must be so beautiful because it experiences the fresh



Nyskc Family Conference 2013

Nyskc Movement



July 1 - 4



Arizona

**Nyskc World H.Q.
조직위원회**

총재 :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 최고선 목사
상임회장 : 디모데박 목사
실무회장 : 이병완 목사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 학회**

학회장 : 윤사무엘 목사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아리조나 준비위원 임원 명단

서부분부장 : 김은목 목사 (LA 평화교회)
준비위원장 : 오염운 목사 (길벗한인교회)
부위원장 : 김재욱 목사 (열방교회)
총무 : 윤정용 목사 (템피조로교회)
서기및회계 : 오천국 목사 (새빛교회)

자문위원

박정인목사 문흥국목사 조정기목사
윤상돈목사 송석민목사 유영길목사
김안수목사 윤원환목사 김환근목사
김찬홍목사

행사 안내 및 등록문의 U.S.A

대상 : Family & 목회자 부부
장소 : Northern Arizona University
S. San Francisco St.
Flagstaff, AZ 86011

등록마감일 : June 5, 2013
참가지 : (교통비 별도)
일반인 \$300, 목회자 1인 \$150
T. 845.355.8829, 480.766.1792
646.203.2644, 917.698.9965

"Send the Spirit in Fullness Today"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소서

New Life

Yielding for Manna

Salvation for one by one

Keeping for LORD's day

Complete Offering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2014 Nyskc Family Conference는 Texas Houston 에서"

Nyskc World Mission

www.nyskc.org / e-mail:nyskcworldmission@gmail.com

졸업 연설문 대신 '주기도문' 암송한 美 고교생 화제



1일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인 로이 코스트너가, 미리 준비해 온 졸업 연설문을 찢고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피켄스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가, 공식행사에서 종교적 기도를 금지하는 학교 행정처의 새로운 정책에 반발해, 미리 준비한 졸업식 연설문을 찢고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해 화제가 되고 있다.

로이 코스트너 4세(Roy Costner IV)는 지난 1일 피켄스 카운티에 위치한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섰다.

무대에 선 코스트너는 동료 학생들을 비롯한 청중들에게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을 준비해 왔으나,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코스트너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우리를 빛시키고, 만들어 주셨다"면서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주님께 인도해주시는 것이 매우 기쁘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내가 말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잠시 쉬었다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라고 입을 연 코스트너는, 청중들의 박수와 환호가 점점 커지자 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킨 채 주기도문 암

공식석상에서 기도 금지한 학교 방침에 반발

송을 끝냈다. 졸업 행사를 담고 있는 영상을 통해,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낸 코스트너의 즉석 연설을 볼 수 있다. 코스트너 뒤에 앉아 있던 한 교직원 은 그가 주기도문 암송을 시작하자,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코스트너는 피켄스 카운티의 학교 행정 당국이 졸업식을 비롯한 학교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정책에 반발해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밝혔다.

피켄스 카운티 학교 당국 대변인 존 에비(John Eby)는 "학교 이사회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 무신론단체가 이사회 회의를 진행할 때 기도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기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다른 학교 행정 당국 역시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은 피켄스 카운티 학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 회의에서 학생들이 이끄는 집회가 종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동체 회원들은 학교 이사회가 종교적인 기도를 금지한 데 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의 변화에 항의하기 위해 결속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이사회는 결국 투표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사회 회의에서 비종교적인 기도를 드리게 됐다.

그러나 예비 대변인은 크리스천뉴스네트워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졸업생 대표가 그의 행동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기본 방침은 학생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현재 졸업했고,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해도"라고 말했다.

지역 뉴스채널인 WISTV1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코스트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바일 앱을 제작하고,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도 역시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을에 클렘슨 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할 앞두고 있다.

강혜진 기자

전세계 교회들 4200만 난민들 위해 기도하는 세계난민주일

"총체적으로 기도하고 최소한이라도 도우려 노력하자"

세계복음연맹(WEA)과 글로벌 파트너 'Refugee Highway Partnership(RHP)'는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오는 16, 23일을 '세계난민주일'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200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전쟁·폭력·핍박을 피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세계난민주일은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 행사와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난민들에 대한 복지와 보호에 공통적인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톰 앨빈슨(Tom Albinson) WEA 난민 대사는 레위기 19장 34절을 인용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듯,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난민들, 망명을 원하는 자들, 국내 추방자들, 국적없는 자들을 돕는지 바라보면 이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즈(Antonio Guterres)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은 최근 연설에서 교회나 기독교 단체가 난민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의 확신을 전한 바 있다.

세계난민주일은 교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더 넓은 범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크리스천들이 난민들의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그들을 자신의 사역 안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된다.

WEA 제프 터니클리프(Geoff Tunnicliffe) 대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방황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데 있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난민주일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는 모든 교회들이 난민주일을 적극적으로, 사려 깊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세계 난민들은 쉽게 잊힐 뿐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5)

앨빈슨 대표는 "전 세계에서 Refugee Highway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국가가 없다. 세계난민주일은 전 세계 교회들이 강제적으로 추방당한 이들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을 알리고 그들을 깊이 돌볼 수 있는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신시내티 주 가톨릭 교구

인공수정된 여교사 해임했다가...

17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신시내티 주의 가톨릭 교구가 최근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여교사를 해고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으로부터 17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현재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동성애자이며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나 그가 해고당한 이유는 동성애 성향이나 동거 때문이 아닌 인공수정 때문이었다. 참고로 신시내티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주이며, 가톨릭은 인공수정을 교리상 금지하고 있다.

교구측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구절을 여교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스트프라이스힐에 소재한 성로렌스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크리스타 디오스는 2010년 10월 해고 당한 이후의 말린 월급 5만1천 달러, 피해보상금 2만 달러, 차별보상금 10만 달러를 손에 거머쥐게 됐다.

교구는 "인공수정을 금지하는 가톨릭의 가르침을 디오스가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디오스의 변호인은 "디오

스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할 성직적 책무가 부여되는 분야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종교탄압이라는 것이 종교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왜냐하면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에 입각해 직원을 고용·해고하고 학생을 가르칠 권리가, 사실상 법에 의해 박탈당하는 것이 때문이다. 이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그러나 수많은 법학전문가들은 교구가 항소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보고 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디오스를 고용했다고 해서 그에게 가톨릭 교리를 강요할 권한까지 있다는 것은 아니며, 만약 강요한다면 이 또한 수정헌법 1조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구 관계자는 "우리는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을 대하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이 기초를 이룬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개탄했다. 그는 "우리는 교육 현장을 사역으로 보고 있다. 이전의 교사들은 모두 자신을 사역자로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캘리포니아 로버트 원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쉐퍼드대학교, 2013 졸업 및 학위수여식 개최



쉐퍼드대학교가 8일 미주평안교회에서 2013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쉐퍼드대학교가 8일 오후 2시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에서 2013년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살롬 김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이란 제목의

설교에 이어 정근택 학생(목회학 석사 졸업)이 이사장상을 받았다. 쉐퍼드대학교는 신학 전공자뿐 아니라 음악, 간호학,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졸업생을 배출해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토마스 맹 기자

벨리연합감리교회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열려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2일 벨리연합감리교회서 조혈모세포기증 생명나눔캠페인을 전개했다.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이 미국 전국골수기증자협회(NMDP) 산 하단체인 아시안골수기증협회(A3M)와 함께 2일 LA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생명나눔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미국의 아시안골수기증협회(A3M)에서 오래 전에 계획됐으며, 한국 기관인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가 참여해 18세 이상 44세 미만의 한인 대상으로 적금 100, 22명의 젊은 신도들이 조혈모세포기증에 참여했다.

특히 캠페인에서 생후 7개월 이후 희귀병을 앓고 있는,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이민 2세 커너(7세)라는 어린이를 위한 사연을 나눴다. 커너는 3살 때부터 혈액암(Leukemia) 진단을 받고 1차례의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재발해, 현재는 매 4주마다 감염을 방지하는 치료(IVIG)를 받고 있으며, 골수이식자를 찾아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6년 전에 조혈모세포기증신청에 참여한 벨리연합감리교회 류재덕 목사는 골수기증자 모집캠페인에 앞서 야고보서 1장 19-25절 본문과 '복을 받으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큰 경

건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도에 창립된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KALS)은 한국의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2007년도에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체(NGO)로, 한국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를 중심으로 법인 이사회를 구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아시안골수기증협회와 함께,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성덕바우만의 골수이식이후 혈액암진단을 받고 아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미국의 아시아계 환자들을 위해 한국에서 군부대와 대학생 및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기증캠페인을 전개해왔다. 2001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아시안골수기증협회를 통해 10여명의 아시아계 환자들을 한국 국민들에게 소개하며 조혈모세포기증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생명을나누는사람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벨리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전역의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별히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미주지역 감리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정돼 있다.

OC교협의 사모들 위로 축제 올해도 '풍성'



OC교협 주최 '사모 블레싱나잇'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매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 이하 OC교협)에서 주최하는 사모들을 위로를 하는 잔치 '사모 블레싱나잇'이 30일 하워드 존슨호텔에서 열렸다.

교협 관계자는 "항상 목회자들의 그늘에서 여러모로 수고하며 성도들과 교회를 조율해 섬기며 헌신하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110여명의 사모들이 참석했으며, 40여명의 OC교협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1부 예배에서는 사회 김기동 목사(OC교협 부회장), 기도 윤덕근 목사(OC교협 부회

장), 설교 민경엽 목사가 '사모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만찬과 더불어 사모합창단의 합창과 유창열 목사의 사모들께 드리는 편지낭독에 이어 글로벌국약선교단과 국제홀리워십선교단의 공연이 있었다. 3부는 송규식 목사(OC교협 부회장)가 진행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으며, 특별히 OC교협 후원이사회(이사장 김영수장로)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인들인 후원으로 풍성한 선물과 기념품이 사모들에게 제공됐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재복음선교회
 온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 T. (213) 598-9932

최은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7/21/27/31 수료생배출,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로션교사 양성
 -약물이나기구나인산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너전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베리나 및 수양관 사용
예약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714)932-8993, (760)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실현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함사!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쉽)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닉 부이치치 “자살하려는 이들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환하게 웃고 있는 닉 부이치치

방한 기자회견 갖고 두번째 자서전 「플라이」 소개

제팔 다리가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적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Nick Vujicic)가, 자신의 인생을 담은 두번째 책 「플라이」를 소개했다. 부이치치는 7일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호주 태생인 부이치치는 선천적으로 팔 다리가 없다. 얼굴과 몸통 뿐인 자신의 모습이 괴로워 8세 이후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부모의 전폭적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점차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호주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세워진 'LIFE WITHOUT LIMBS(사지 없는 삶)' 대표로 있다.

그는 2005년 미국으로 건너가 고아·장애인·청소년들을 후원하는 ‘닉 부이치치 재단’을 설립, 전 세계를 돌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가나에 씨와 결혼했으며 올해 2월 아들 키요시를 얻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 감격스러웠지만 안아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에서 “사람들은 나를 슈퍼 히어로로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우울한 시기도 보냈다. 나는 여러 분과 동일한 평범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과 기도의 힘

때문”이라며 “한국의 청소년들이 너무 높은 주변의 기대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자살률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나도 10살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도와줘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까지 놀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따돌림과 폭력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정에서부터 심어줘야 한다. 한 사람을 자살에서 구해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닉 부이치치 한국 재단도 설립해 고아와 장애인,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고, 북한의 고아와 아이들을 돕는 사역도 기대하고 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북한도 방문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한국 정부나 교육기관이 청년들에게 수학이나 과학 뿐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교과목에 넣어 가르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를 그냥 매주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실제 삶 가운데서 체득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무분별한 논문표절 시비, 불신조장과 인격살인 폐해”

교회언론회, 외부세력 개입 비판하고 판정기준 마련 촉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1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한국교회는 조속히 목회자 연구윤리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정하고, 기독교 인사들은 모든 분야에서 더 높은 윤리의식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교회회를 허무는 행위들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이 논평에서 특히 사람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관련, 외부세력이 지난 행태로 교회를 허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아무나 나서서 공격 대상을 정하고 ‘논문 표절’을 임의로 조사하여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폐해를 낳게 되며, 더 나아가 한 개인에 대하여 ‘인격살인’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음을 본다”며 “논문 표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시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사회에 심각한 폐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오정현 목사 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들과 몇몇 사랑의교회 교인이 오 목사의 논문을 표절로 단정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여타의 방법으로 공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다”며 “더 놀라운 것은, 표절에 대한 조사와 판정의 권위와 객관성, 공정성은 오직 학위를 수여한 포체프스트롬 대학 당국의 고유 권한 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과 무자격자의 조사보고서에 떠밀려 당회마저 서둘러서 표절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교육과학 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어 해당 대학측이 1, 2차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독창성과 공헌도를 인정하고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문과 학위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자들은 2012년도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일부분을 수정 보완 지시한 것에 대하여 학위 논문마저 세탁하는 부도덕함을 드러냈다고 비난하고 있고, 2차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문 수정세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차 조사 지시에 따른 논문 수정보완에서 이미 고인이 된 교수의 씨인마저 위조하는 대단함을 보였다고 비난하면서 과립치법으로 몰았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제는 교계가 나서야 한다. 교계는 앞서 언급한 교과부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 해당 학위 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모든 판정을 맡기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논문 표절로 인하여 기독교 이미지에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고려대는 2007년 9월 교수 임용 시부터 2년 전까지만 기 논문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또 최근 서울대는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문 표절 사건 조사 기간을 교수 임용 시점을 중심으로 3년 전에서 4년 전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도 속히 ‘몇 년 전 논문까지 소급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교회언론회는 “자신들의 숨은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이 결국 사탄에게 쓰임 받는 것임을 알지 못하며) 지도자 개인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매도하여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복음전도의 문을 막는 일에 있어서 일부 교계인사들의 선동적 행위도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경도되어야 한다”며 “이런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전도서7:16)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고린도전서 13:23)’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다.

최바울 선교사 “개혁교단 자문받아 좋은 단체 되겠다”

기자회견 갖고 입장 표명... 양태론·슬로건 등 비판에는 반박·반론

인터콥 대표 최바울 선교사가 7일 교계 언론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 교단에서 자문위원회를 조직해 인터콥을 돕겠다고 했다”며 “지도를 잘 받아 한국교회에서 사랑받는 좋은 선교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바울 선교사

신의 논리로 각색해 양태론 텃씨우기를 감행하고, 자신의 왜곡된 시선으로 굴절된 결론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면서 인터뷰를 이단으로 몰고 가기를 서슴지 않았다”며 “적어도 텍스트를 공정하게 분석하려면 공시적인(synchronic) 방식으로 책 전체에서 문장과 단락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야 객관성을 잃지 않는 전문 학자의 태도인데, 저의 책 《세계영적해(2004)》를 분석한 그의 주장은 주관성과 비전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인터콥조사위원회’(위원장 황호관 목사)를 구성하고 지난달 최바울 선교사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던 개혁 총회(총회장 입장섭 목사)는, 최근 그에 대해 ‘이단성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영입 절차를 밟고 있다.

최바울 선교사는 자신의 여러 저서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책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신학대나 앞서 언급한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주에 있는 인터콥 간사들에 대해서 “교회 관계나 사역 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려 한다”며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인터콥) 비전스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분간 현지 비전스쿨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바울 선교사는 최근 이인규 권사(대림감리교회)가 작성한 ‘이단 연구보고서’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한 교계 소식지를 통해 게재했다.

이인규 권사는 ‘인터콥의 이단 연구보고서’라는 글에서 “인터콥 최바울의 사상은 베뢰아 사상과 이원론, 극단적 세대주의 사상과 압박한 종말론, 신사도운동의 접목이 명백하다”며 “최바울의 책 일곱 권은 이러한 사상으로 가득하고, 누구라도 책을 통해 어렵지 않게 최바울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권사는 “최바울은 비판을 받으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뒤에서는 스스로 세운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에게 자문을 받겠다고 그들을 방패로 숨는 작전을 구사해 왔다”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시작했다는 2012년 이후에도 그의 책과 설교 동영상은 여전히 전과 동일한 주장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바울 선교사는 이에 ‘대림감리교회 이인규 권사의 왜곡과 곡해에 대한 반박과 반론’이라는 글에서 “본인은 양태론자가 아니고 한결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왔고, 니케아 신경(325년)과 콘스탄티노플 신경(381년), 칼케돈 신경(451년)에 기록된 대로 정통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고백한다”며 “이인규 권사야말로 제대로 양태론을 알고서 나를 비판하는 지의심이 간다”고 했다.

최 선교사는 “삼위일체 이단에는 크게 양태론과 삼신론이 있는데, 저는 이런 오류들을 잘 파악하면서 동시에 성부·성자·성령이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성경대로 (요일 5:7-8) 믿는다”며 “대림감리교회 권사이자 세이언 사무담당자인 이인규 권사는 신학적 전문성을 갖춘 조직신학 학자가 아님에도 상대방의 말과 글에 이단이라는 흠집을 내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내세워 본인을 이단으로 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인규 권사는 최바울 선교사의 여러 권의 책에서 부분적으로 골라낸 글을 자

신의 논리로 각색해 양태론 텃씨우기를 감행하고, 자신의 왜곡된 시선으로 굴절된 결론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면서 인터뷰를 이단으로 몰고 가기를 서슴지 않았다”며 “적어도 텍스트를 공정하게 분석하려면 공시적인(synchronic) 방식으로 책 전체에서 문장과 단락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야 객관성을 잃지 않는 전문 학자의 태도인데, 저의 책 《세계영적해(2004)》를 분석한 그의 주장은 주관성과 비전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최 선교사는 “이 권사는 저의 책을 다 조사하고 공개된 설교와 행적을 다 조사한다면서도 왜 이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이 권사가 본인을 이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짜깁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또 “이 권사는 이단 사상인 양태론에 대해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엉터리 양태론에 시각을 맞춰 본인의 글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을 공격하여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선교사는 인터콥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의 서진운동’, ‘백투 예루살렘 선교운동’ 등의 용어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슬람권 선교를 감당하여 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10/40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터콥의 선교 비전으로, 해당 용어들은 이러한 ‘모토’, ‘슬로건’일 뿐”이라며 “하지만 KWMA 일부 지도위원들의 권면을 따라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데도 선교신학자도, 조직신학자도 아닌 이 권사가 마치 선교 전문가인양 수년간 스토킹하듯 집요하게 시비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이원론·베뢰아 관련설·극단적 세대주의·신사도운동 관련성 등이 권사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바울 선교사는 “평신도 이인규 씨는 3년 이상 본인을 근거 없이 극심하게 비난했는데, 이는 언어폭력을 넘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한국교회 앞에 공개성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글을 인용해 본인을 비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언론에 게재하는 등 동일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즉각 당국에 고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정애연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아태평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아태평양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찬(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 9192 / missionway.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김민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차 시우성)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철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949) 654-0191

신현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김함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리본당)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당: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미리본당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은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관음되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하시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염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태평양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CARE INTERNATIONAL
1309 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허기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도 자녀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찬양 오후 8:00 본당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el: 562) 802-4959, Cell: 714) 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대낮에 교회 주차장에서 열살 여아 납치 될 뻔.. 교회도 안전지대 아냐



사건이 발생한 릴번 소재 퍼스트배티스트처 전경

릴번 소재 한 교회 주차장에서 놀던 10살 여자아이가 납치당할 뻔한 사고가 일어났다.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지난 주말인 1일 오후 7시 40분쯤, 릴번 소재 퍼스트배티스트처 앞 주차장에서 엄마와 함께 한가롭게 툄러 블레이드를 타던 여자아이에게 낯선 30대 중반의 남성이 다가왔다.

범인은 아이를 지켜보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자동차와 툄러 블레이드 경기를 해 보자는 말

로 아이의 마음을 산 뒤, 모델처럼 예쁘다는 감언이설로 자신의 차에 타보려면서 문을 열어줬다.

아이의 자동차에 타기를 거절하고 그쪽으로 오고 있던 엄마를 크게 불러 위기를 모면했다. 납치를 시도하던 범인은 아이의 엄마를 발견하자 서둘러 자동차를 타고 도망갔다.

아이의 엄마는 돌아오는 길에 들린 주유소에서 방금 전 아이에게 접근했던 남성의 차량을 발견해 쫓았지만 놓쳤다고 한다.

릴번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30대 중반으로 중간 정도 톤의 흑인으로 반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검정색 셔츠에 블루진을 입었고, 금으로 된 결혼반지를 끼고 빨간색과 회색 조단 스니커즈를 신은 상태였다. 그가 탔던 차량은 회색 닷지 차저(Dodge Charger)로 반짝이는 휠이 있었으며, 자동차 튜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불미스런 소식을 접한 교회 측은 성도들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교회 바로 근처에 사는 성도들은 계속 교회 주변을 주의 깊게 주시하라 것이라고 밝혔다.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모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번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덤으로 16온스 소금(소비자가격 40불) 상당을 더 드리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보증기간)

무료 프리미엄TS탈환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16온스(파운드)
소비자가격 40불
무료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No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No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차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를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번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던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치를 받아야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응연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성숙한 공동체 만들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종종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과거의 나의 정체성은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존재를 관통하는 정체성의 또 다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나와 교회의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유기적인 통일체로서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존재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까?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선한 인격 즉 성정(에토스, ethos)을 성숙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성숙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the perfect image of God)인데, 그의 몸 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성정, 곧 그의 성품과 인격(character)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이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요즈음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신자의 말보다는 행동에 설득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당시의 불신세계 속에 사는 성도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하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엡 4:1-2)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인격자가 되어야 하고, 바른 윤리를 가져야 한다. 에토스라는 말에서 윤리(ethics)가 나온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바탕을 두고 윤리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신자의 삶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성정, 윤리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연합(unity)과 통일성에서 성숙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보편교회(universal church)로서 한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의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 교회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엡 4:3).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하나 됨을 해친다. 머리되신 예수님의 요구대로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됨을 이룰 수 있다.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머리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함이 교회가 가지는 전도의 최고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의 성숙은 교회 안의 다양성(variety)을 배제하지 않는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신자를 획일화시키지 않으신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엡 4:11).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므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가진 자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만족이나 교만에 이르기를 보려는, 반드시 성도를 세워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사명과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은사의 다양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작은 많은 봉사의 분야가 개발되어야 한다.

방언, 신유, 혹은 기적 등의 특징은 사탄 강조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풍성한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특정부분의 기능적 장애를 피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

교회의 성숙은 분명한 목표가 있거나, 바로 머리되신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성숙은 개인적인 성숙과 공동체적인 성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개인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1 것과 함께, 온 몸이 사랑 안에서 공동체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의 모든 부분은 사실상 공동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성숙은 모두 공동체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인격의 심화, 교회의 다양성과 연합 모두는 공동체로서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옷깃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성도는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주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성숙의 최고 비결이다.

글=충현선교교회 민중기 목사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 다섯번째 지팡이

▶사도행전의 개요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AD 62년경에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예수 그리스도 시대)을 다루었고,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계속되는 사역을 교회시대와 선교시대로 나누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교회가 확장된 사실(행 1:8)을 기록하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나를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대한 약속(눅 1:32-33)으로 시작된 복음(십자가의 죽임과 부활)이 성령에 의하여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나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

행 1장6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사도행전을 통해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다(마 12:18, 눅 11:20, 행 2장). 둘,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

에게 임한다(마 28:18, 눅 24:47, 행 2:21). 셋,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행 1:8).

▶신학적인 사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1) 신약의 역사는 크게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사도행전의 성령시대로 나누어 집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모든 답을 다루고 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요 15:26, 16:7-14)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베드로를 들어 쓰심으로(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하여 말씀이 온 지구의 땅 끝까지 선포됩니다.

2)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하나님나라의 회복운동을 위하여 ‘양을 먹이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의 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행전, 선교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 중심의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마 16:18),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안에서이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제시합니다.

▶바울 중심의 선교시대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여, 선교사 파송을 통하여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파합니다(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3) 오순절은 교회가 “땅 끝을 향한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음 받은 날입니다(행 2장).

4)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는 결론부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아직도 로마에서 설교하고 있으며 그 자신과 또 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

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에 관하여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이야기(복음 전파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는 모든 역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끝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5)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도전과 박해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문화적으로는 헬라사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과 바울서신서의 관계

제 2차 전도여행 혹은 그 이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 후서의 위치

제 3차 전도여행: 고린도전후서, 로마서의 위치

제 1차 구급시기: 옥중서신(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위치

추정 1, 제 4차 전도여행(AD 62-64):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위치, 바울은 1차 구급에서 풀려 나와 마게도니아, 그레데, 에베소 등을 다시 여행한다. 이때 디모데와 디도를 에베소와 그레데 섬에 두고 목회를 하게 합니

다. 그리고 이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일들을 정리하여 격려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추정 2, 제 2차 구급 시기(AD 66-67년) 그리고 순교: 디모데후서의 위치, 바울은 네로황제에 의하여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와 헬라사상(후스토 곤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 서문의 요약)

예수님 당시의 여러 사조들 중에 특히 기독교의 헬라화가 기독교 사상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독교의 헬라화된 이해가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헬라화의 형식과 사상을 본능적으로 배격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셨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해된 사상들은 교리로써 확정되어 이제까지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글=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이학진 장로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농협 **홍삼**은 100% 국산 **올림픽+하바드**

한삼인은 정직합니다.

www.korginseng.com **323.737.8888**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사랑헬스케어는 여러분을 의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 월\$62부터

크리스천 건강검진 플랜 월\$30부터

16만 크리스천 가정과 많은 기독교 단체가 **건강보험 대신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213-986-8119 Fax.213-254-0464
 www.saranghealthcare.org

문의전화 이원준 전도사 213-700-9212
 제임스정 전도사 714-873-8724

참여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선배 목회자들의 영성이 뿌리 돼 열매 맺은 것”



남가주원로목사회 초청예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어느 원로목사가 은퇴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다.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이고,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지역 원로목회자들의 가슴에는 온정이 스친다. 이민 1세대로서 혈혈단신의 몸으로 고국을 떠나 도미해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어제의 ‘복음의 용사들’이다.

그러한 원로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역교회들이 있어 훈훈한 정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이다.

전통적으로 남가주 일원 교회들은 지역 한인기독교 원로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 지역교회와 조국과 미국을 위해,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합심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왔다. 예배 때 나온 헌금을 모아 선교회를 돕기도 한다. 매달 생일을 맞은 회원들에게는 생일축하 노래와 함께 선물을 증정한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못

듣는 ‘생일축하 노래’를 듣는 원로목회자들의 얼굴에 띠는 미소가 수줍기만 하다. 한 목회자 부부는 연신 눈물을 그렁거린다. 매년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순서도 많고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다. 그래도 원로목회자들의 얼굴에선 불평하는 기색을 보기가 힘들다.

최근 남가주 2개 교회가 지역 원로목사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이 같은 장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드림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와 6월 6

일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에서다. 담임 목사와 제직들, 그리고 권사들은 저마다 부모님을 모시듯 기쁨으로 영접하고 정성껏 섬겼다. 골 2장 6-7절을 본문으로 ‘뿌리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성현 목사는 “최근 안식년을 맞아 한국을 찾아 자신의 뿌리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원로 목회자들의 영성은 대나무의 영성과도 같은 것”이라 했다.

그는 “대나무는 4년 동안 길게 뿌리를 내리고 5년째부터 살아난다”면서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온 선배 목회자들의 영성이 뿌리가 돼 후배 목회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꺾이지 않는 깊은 뿌리의 영성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달라”고도 했다.

또 지난 6일 고전 15장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인랜드교회 박신철 목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하면서 “원로 목회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있다”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예배가 끝난 후 원로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선물을 공개받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가주원로목사회(회장 이기홍 목사)는 6월 20일(목) 11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 7월 11일(목) 11시 사랑의빛선교회, 7월 25일(목) 11시 나섬열린문교회(박현성 목사)에서 차기예배를 드린다. 이인규 기자

김한요 목사 “우겨쌌 당해도 현실을 뚫고 가는 것이 믿음”

베델한인교회 4대 담임 내정된 후 첫 주일예배 설교서 ‘믿음’ 강조

어바인 베델한인교회 제 4대 담임으로 김한요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가 내정된 가운데, 지난 2일 주일예배에서 김한요 목사는 ‘믿음(히11:1-3)’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어 사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으로, 믿음은 살고 죽음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며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서 쓴 서신이 아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쓰여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믿음은 세리토스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현실이 미완성과 같이 아직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미 이뤄진 것처럼 믿고 현실을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며 “우겨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말씀 때문에 안식에 거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며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방주를 지었고,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주실 것을 바라보

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유익한 시간을 허락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아직 이뤄지지 않은 답답한 현실을 믿음으로 뚫기 바란다”고 덧붙이며 성도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를 찬양함으로 설교를 마쳤다.

김한요 목사는 베델한인교회 청빙위원회의 청빙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델한인교회는 12일 제직회를 소집해 김 목사의 청빙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김평육 선교사 ‘하늘생각’ 등 출판기념회 연다

김평육 선교사(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의 두 저서 ‘내가 여기 있다이다’와 ‘하늘생각’의 출판 기념회 및 아프리카 선교보고대회가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오렌지힐교회(백창호 목사)에서 열린다.

저서 ‘내가 여기 있다이다’는 김 선교사가 지난 20년 동안 크리스찬라이프 주간 기독교신문의 발행인으로 있으면서 발표했던 칼럼을 묶은 것으로,

미주지역의 한인교회를 향해 선교와 교회 갱신을 외치는 글들로 구성됐다. ‘하늘생각’은 김 선교사가 1994년 르완다 전쟁현장을 취재한 다음 미국과 아프리카를 왕래하며 아프리카 5개국에 NGO를 설립하고 구제와 복음 사역을 해오면서 품었던 사역정신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성령의 통치 △완전한 의탁 △온전한 헌신 △전인적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사역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이제 후배들에게 사역의 장뿐만 아니라 사역의 정신을 물려줄 때라고 생각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출판기념회와 더불어 아프리카 선교보고의 밤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콩고)에서 NGO로 활동하

고 있으며, 과학영재학교, 국제학교, 신학대학교,대학원, 고아원 등의 사역과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을 제작하는 방대한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선교회는 “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며 “병원선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의료진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213) 663-3710

SB 부모님선교회 7주년 감사예배

사우스베이 부모님선교회가 7주년을 맞아 오는 30일(일) 오후 5시에 성서장로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감사로는 성서장로교회 담임인 김병용 목사가 서게 된다.

행사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면 된다.

▷성서장로교회 주소: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문의: (310) 515-7207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Life

기쁨의 가정

사소한 것을 통한 행복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지 못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라고 합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신체, 맑은 날씨, 푸르른 잔디와 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의 선물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누는 삶이라 합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한 풍성한 삶은 나누어 본 사람만이 아는 크고 놀라운 행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생활 속에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은 많은 물질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물질이 있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는 것, 사랑이 담긴 미소를 살며시 보여주는 것, 아주 작은 것에 칭찬해주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포근한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포근한 사랑을 느낀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함께 행복해져가는 것입니다.

또 간단한 말이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큰 힘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거나 베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해'라는 말과 '미안해'라는 말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부요하게 만들지만 반면, 이런 말이 없으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의 여유는 불안감이 없는 평안함에서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하지 못해서, 과거에 겪었던 상처들과 고통에 매여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희생자로 살아가며 감사하기 보다는 늘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보다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림으로 남들 위

에 군림하는 것을 통해 불안감을 없애려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통한 행복을 누리기 보다 끊임없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추구하여 행복해지려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행복을 좇기만 하고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희생자의 삶을 내려놓고 과거와 화해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배우자의 언어를 알아서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제 아내의 첫 번째 언어는 '봉사'입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몸을 돌려서 기쁨으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쇼

핑도 돕고, 음식 준비와 서빙도 돕고 아이도 재우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언어인 '선물'을 위해 결혼 후 잘 선물하지 못했던 꽃을 가능한 자주 선물합니다.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는 옛말처럼 저의 아내는 저의 첫번째 사랑의 언어인 '칭찬과 인정하는 말'로 저에게 화답해 줍니다. 그에 더해 두 번째 사랑의 언어인 '스킨십'을 위해 자주 포옹도 해줍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기엔 우리의 삶 전체에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상담학 박사 김훈 목사

중년부부의 위기

본능과 이성-삼손과 들릴라

인간은 본능만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 반면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간다. 본능이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을 말한다.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언급하는 것은, 최악된 본능을 좇아 인륜을 거스르는 인간을 말한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종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여 자신이 파멸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삼손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나이였다. 그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성별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자신의 성질과 격정에 못 이겨 힘을 휘둘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앞서 자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구슬러 그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천백 세

겉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매수당한 들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세 번이나 거짓으로 답하였다(삿 16:4-14).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고 하였다. 들릴라가 날마다 들볶고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자기 속을 털어놓고 말았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母胎)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하였다.(삿 4:15-17) 그는 들릴라에 빠져 이성을 잃어버렸다.

비밀을 알아낸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삼손을 무릎에 누어 잠들게 하고 나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머릿털 일곱 가닥을 깎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허약해지기 시작하더니, 힘이 빠져나가 버렸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 힘을 쓰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떠나셨다. 블레셋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후버낸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눈줄로 묶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삿 4:18-21).

삼손은 들릴라 사건 이전에도 여성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아내 담나 여인이 울며 조르니 그 답을 알려주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로 인하여 답을 맞으니 삼손은 화가 났다. 얼마 후 아내에게 가니 장인은 그의 아내를 이미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다. 또한 삼손은 괴로운 마음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주막을 드나들며 기생들과 어울렸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적 존재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호시탐탐 삼손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들릴라도 그들과 결탁하여 여러 번 삼손을 잡아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켰다.

그런데도 삼손은 경각심을 갖기는 커녕 여전히 들릴라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아마도 그는 사자를 염소같이 찢으며 여우 삼백 마리를 잡고 나귀 턱뼈로 사람 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믿었던 것 같다. 예로부터 영웅호걸 옆에는 미인이

많이 있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용사와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고, 자기를 영웅으로 대접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갈망한다. 남성들은 영웅담과 모험담 속의 주인공이 실제 삶속에서도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영웅 주변에는 적들이 많이 있다. 그중 파르파탈(femme fatale)은 남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치명적 매력을 가진 여성이다. 오늘날의 남성들도 영웅이 되려는 무의식적 마음으로 인하여 유혹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최악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경계를 하지 않는 한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유 1:10)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잃고 나서야 이성을 되찾고, 하나님께 힘이 회복되는 것과 블레셋 원수를 갚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 이선이 박사는 누구?

이선이 박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신대학원에서 석사(M.Div), 박사(Th.D. in Missiology) 학위를, 미국 플로리다신학원(FCTS)에서 여성리더십으로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츄츄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삼상”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 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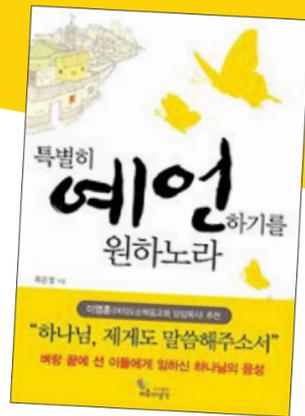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6월 19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Tel. 562 900 2399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무당처럼 생각하면 오류... 성경적 예언은 권면과 위로”

최문정 선교사, 올바른 은사 체험과 사역 전하는 책 출간



‘성령 사역’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이때, 시행착오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령적 성령 사역’을 제시하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마음과생각)>가 출간됐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 중인 최문정 선교사(사진)는 책을 통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경종을 울리면서도, 성령의 은사를 ‘사도 시대’로만 제한하려는 시대적 흐름도 거부한다. 그리고 ‘신비적 체험’에만 몰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이들에게 올바른 은사 체험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있다.

또 ①하나님은 사랑이시다 ②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③자유가 있어야 성장한다 ④말씀만이 영원하다 ⑤열매로 알리라 등 예언을 분별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추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예언의 은사와 기도로 선포되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저자의 간증과 지체들의 증언들로 고백돼 우리의 심장을 뒤흔게 만드는 책”이라며 “말씀에 뿌리를 둔 올바른 은사 체험과 사역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생하게 담은 책이 출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십자가’, ‘말씀’을 수 차례 강조한 최 선교사와의 인터뷰.

-예언을 포함한 ‘성령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지 않고, ‘신비주의적’이나 ‘기복적’이라는 폄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해야 하는가.

“그러한 염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기 전에는 두려웠고, 피해당했다. 목사님들의 인정이나 질서를 해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사람들, 세상적인 일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역을 조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주소서”

예언을 분별하는 다섯 가지 원리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생생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다

심스럽게 시작했다. 사역자들의 열매를 보아야 그 사역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이 필수적이다.

성경적인 ‘예언’의 정의는 ‘권면과 위로’이다. 구약에는 ‘예지적인 예언’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권면과 위로가 주를 차지한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닌가. 예언을 마치 무당이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의 것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자주 땅의 것들을 말하다 보니... 결국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죽어야 사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복적인) 예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늘 뒤집어서 생각한다.”

- ‘성취되지 못한 예언’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지적 예언의 경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서는 그 예언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분 중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보는 순간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계속 말하라고 하셨다. 예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도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자리를 떠 버렸다. 잠시 후 추스르고 다시 왔더니, 무슨 일이나

고 물어서 결국 이야기하게 됐다. 하지만 시간이 몇 년 흘렀는데도 그 분에게 지금까지 아이가 없다. 그러면 이 분은 하나님을 마땅히 버려야 맞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분께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고 낙태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치유됐다. 사실 그 아이는 다운증후군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무도 몰랐다. 억눌려 있던 혼자만의 아픔에서, ‘내가 사랑꾼의 울무에서 벗어나듯’ 자유케 됐다. 이후 ‘아이를 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사명자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봐도 알 수 있듯, 주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지만 감추고 싶었던 정곡을 찌르신다.

이게 진정한 만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죄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언 사역이 ‘응급처치’와 같다고 하셨는데.

“피를 흘리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지만 어디서부터 피가 나는지도 모른 채 상처를 잘못 건드

리게 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자신이 병들었지만 병든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언 사역을 응급처치라 표현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가야 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자라나야 한다.

제 책은 은사가 많은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지침서와 같다. 제 고난과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쓰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처리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인 것 같았다.

예언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기도 했다.

무엇보다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핵심은 십자가이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분들은 이런 예언 자체가 필요없을 수도 있고, 기복적인 예언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대웅 기자



선교지 학생들과 함께한 최 선교사

감림 수양관 여름수련회 접수

새로운 지도자가 2세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이 단장한 감림산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접수중

- 30-200명 수용가능9개성전(학생, 전교인, 프레스 디아스)
- * 한, 중, 일, 양식제공 (별도 대형 2개 주방시설 완비)
- * 동시에 3 그룹 300명 수용 (침실, 샤워, 냉 온방 시설)
- * 300대 주차장, (축구, 족구, 배구, 농구 운동장)
- * 어린이 역사, 자연학습장(동 식물농장, 풀장시설)

치유 사역 : 영육간에 지치고 병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세계적으로 능력있는 강사 30명 초청)
- JS Healing Ministry: President Moses S. Kim Pastor (213)216-3700

중·고교 학생들의 금식기도 팀은 무료로 봉사합니다.

다민족 2세들을 하나가 되게하는 비전 실천: 기초과학 부분인 수학을 지역사회에 10개 지부에서 7년간 봉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부설립을 지원합니다. www.glimathclub.com

노후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보내며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각종 건물관리에 은사를 가진 분을 모집합니다.

24101 Christs Tree Ln, Perris, CA 92570

감림 수양관 연락처 (951) 943-4207, (909)-993-3939, (323) 868-9191, (213) 216-3700
www.gamrimsan.com / www.kalimretreat.com / www.retreatkalim.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전단지

문의: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www.phhyundai.com

복이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월 스페셜!

좋은 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82
+TAX



2013 ACCENT GLS (STK #398513)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16,890

PH HYUNDAI D/C \$1,373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STK #713499)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22,375

PH HYUNDAI D/C \$1,325 LEASE CASH \$1,0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23
+TAX

2013 EQUUS SIGNATURE

24 Month lease/12k mile/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10,5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369
+TAX (STK #065945) Demo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